



통계청, 201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12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

오병국 연구원

■ 통계청은 소비자물가가 2011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4.0% 상승했고, 근원 물가는 3.2% 올랐다고 발표함.

-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(4.0%)은 한국은행과 정부의 물가상승목표치인 $3 \pm 1\%$ 에 부합하나, 2010년(3.0%)에 비해 1.0%p 상승하였고 최근 3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임.
- 2011년 한 해 동안 서비스 물가는 2.7%, 상품 물가는 5.7% 상승했으며,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3.2% 오름.
 -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.6%, 생활물가지수는 4.4%, 신선식품지수는 6.3% 상승함.
- 지출항목별로는 2010년에 비해 통신부문(-1.7%)만 하락하였고, 나머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(8.1%), 교통(7.0%) 등은 상승함.

■ 또한, 통계청은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.4% 상승했고, 전년동월대비 4.2% 올랐다고 밝힘.

- 전월과 비교하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부문은 1.5%,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부문은 0.5%, 주택·수도·전기·연료부문은 0.4%, 기타상품 및 서비스부문은 0.4%, 음식 및 숙박은 0.2%, 보건부문 0.1%, 오락 및 문화부문 0.1%, 교육부문은 0.1% 각각 상승함.
 - 의류 및 신발부문과 교통부문은 변동이 없음.
 - 주류 및 담배부문은 0.1%, 통신부문은 이동전화료 인하 등으로 인해 0.3% 각각 하락함.
- 전년동월대비로는 통신부문만 3.5% 하락하였고, 나머지 부문인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(7.5%), 교통부문(6.3%) 등은 모두 상승하였음,
 - 주택·수도·전기·연료부문은 5.9%, 음식 및 숙박은 4.4%, 의류 및 신발은 4.4%,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는 4.0%, 기타상품 및 서비스는 3.0%, 보건은 2.2%, 교육은 1.7%, 주류 및 담배는 1.2%, 오락 및 문화는 1.2% 각각 상승함.

(통계청, 12/30)